

FRBR에 의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ncepts of 'work' in FRBR and in International Standard Numbers

김 정 현 (Kim Jeong Hyen)*

< 목 차 >

- | | |
|----------------------|---------------------------------|
| I. 서론 | 2.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 |
| II. FRBR의 제정배경과 저작개념 | IV. FRBR에 의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비교분석 |
| 1. FRBR의 제정배경 | 1.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
| 2. FRBR의 저작개념 | 2.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특성 |
| III. 국제표준번호의 현황과 특성 | V. 결 론 |
| 1. 국제표준번호의 현황 | |

초 록

본 연구는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을 분석한 후,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4개 개체로 구조화되어 있는 FRBR의 저작개념을 토대로 국제표준번호들의 식별대상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ISBN, ISSN, ISMN은 물리적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구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IARN, ISRC, ISAN은 물리적 매체 대신에 기록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ISWC와 ISTC는 어떤 형식이나 수단으로 표현하기 이전의 작품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저작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둘째, FRBR의 포괄적인 '저작' 개념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것은 ISWC와 ISTC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저작개념의 규정을 분석해 보면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이 기본적으로 작품의 창작성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FRBR은 의미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주제어 : 서지레코드 기능요건, 저작개념, 국제표준번호

Abstract

FRBR(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provides a structured conceptual model for relating the data which are recorded in bibliographic records to identify information resources. FRBR has 4 bibliographic entities - the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and item - in its conceptual model.

In this paper, the difference in the 'work' conception between FRBR and international standard numbers is examined. Consequently, the following points are observed:

(1) The ISBN, ISSN, and ISMN identify manifestation level, as they refer to the physical expression of a work. The IARN, ISRC, and ISAN identify expression level, irrespective of its manifestation. The ISWC and ISTC identify work level - the unique artistic creation, whatever its expression or manifestation is.

(2) ISWC and ISTC does not use the word 'work' in the same way as FRBR does. I think that the differences in meanings of the two usages 'work' come from the different positions to information resources.

Key Words : FRBR, international standard numbers, work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gim@chonnam.ac.kr)

· 접수일 : 2004. 2. 25 · 최종심사일 : 2004. 3. 3 · 최종심사일 : 2004. 3. 7

I. 서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보원이 다양화되고, 유통경로가 변화됨으로써 정보원의 생산, 이용, 제공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관리방법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도서를 중심으로 한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동일한 작품이라고 간주되는 것이 소설책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판매됨과 동시에 영화로 제작되어 영화관에서 상영되기도 하며, 그 중에서 비디오로 제작되어 판매점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소설책을 입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서점뿐만 아니라 온라인 서점을 통해 웹에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작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도 다양한 정보원이 되어 유통될 경우에는 소설책과 비디오와 같이 입수경로가 다양하다.

그러나 도서를 읽은 이용자가 그 내용을 영화로 보고싶은 경우나, 비디오를 통해 문학작품을 알고 난 후 그 원작인 도서를 읽고 싶은 경우를 생각하면, 동일한 작품에서 유래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원을 동시에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뿐만 아니라 화상자료, 비디오, 음악 CD, DVD 등 복수의 매체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용자의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새로운 저작개념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IFLA의 FRBR(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은 이러한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정보원은 도서관이나 출판사, 박물관이나 미술관, 문서관, 저작권관리기관, 특허관리기관 등에 의해 독자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각 기관에서는 목록규칙에 근거한 서지레코드, 출판정보관리를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 ISBN이나 ISSN과 같은 도서코드, 박물관자료 목록데이터, 문서관리데이터, 저작권관리코드 등을 사용하여 독자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원에 관한 2차정보 즉, 서지레코드를 작성하여 왔다.

오늘날 네트워크 전자환경에서 저작권관리기관은 도서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고 있는 정보원을 대상으로 권리보호를 위해 정보원을 식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은 전자정보원의 보급으로 도서관에서의 사용과 관련된 저작권처리를 고려하여 정보원의 식별을 필요로 하고 있다. 두 기관의 정보원 식별단위를 비교하여 각각의 식별단위에 대한 특성과 차이점을 분석함으로써 장차 다양한 정보원의 발생에서 이용에 이르기까지 관련기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유통 이용체제를 검토할 경우 중요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먼저 FRBR의 제정배경과 저작개념을 분석한 후, 국제표준규격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준비중인 번호제도 가운데 특히, 정보유통을 위한 ISBN(국제표준도서번호),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ISMN(국제표준음악번호), ISRN(국제표준기술

보고서번호), ISRC(국제표준기록코드), ISAN(국제표준시청각자료번호), ISWC(국제표준음악작품코드), ISTC(국제표준작품코드) 등 8개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식별대상을 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FRBR의 저작개념에 따라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FRBR에 대한 이해는 물론, 국제표준번호들마다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식별대상 즉, 저작개념과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FRBR의 제정배경과 저작개념

1. FRBR의 제정배경

IFLA에서는 1961년 파리원칙과 1971년 ISBD(M)을 비롯한 일련의 규칙을 발표한 이후, 도서관이 처한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1990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서지제어 회의에서 서지제어용 도구의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 여기서 서지레코드의 기능요건을 새로이 정의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으며, 그 후 관계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1997년 FRBR에 대한 최종 보고서¹⁾가 발표되었다.

Cutter는 일찍이 목록의 기능을 ‘첫째는, 이용자가 알고 있는 저자명이나 표제, 주제명으로 자료를 검색하게 하고, 둘째는,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정 도서를 저자명, 주제명, 문헌의 유형으로 보여주며, 셋째는, 특정 판(서지적) 또는 저작의 특성(문자나 주제별)에 따라 자료의 선정을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였다.²⁾ 즉, 저자명이나 표제, 주제명, 판표시, 소장내용 등을 기술하여 돕으로써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록의 목적이다. 이것은 FRBR이 저작수준에서 작품의 표제와 저자를 기술한 다음, 특정 작품에 관한 판표시, 언어표시, 물리적 특성을 표현형이나 구현형 수준에서 기술하게 하는 구조와 연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목록의 이용자 지향형에 대한 배경을 바탕으로 FRBR의 구조를 생각하여 보면, 누구에 의해 쓰여진 어떤 제목의 작품인가를 식별하는 개념을 정점으로 하여 그 아래에 판이나 언어의 차이를 구별하는 표현형이 연결되고, 다시 물리적 특성이나 소장상황을 기술하는 구현형이나 개별자료 수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용자 지향형의 배경은

1)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 Final Report* (München : Saur, 1998).

2) Charles Ammi Cutter, *Rules for Dictionary Catalog, 4th ed.*(Washington, D.C. :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04), p.12.

Cutter와 Lubetzky에서 AACR, ISBD, 그리고 FRBR로 이어진다고 생각되며, 특히 최근에 Tillet³⁾이나 Smiraglia and Leazer⁴⁾ 등이 주장한 ‘목록에 있어 관계성’을 도입하여, ISBD나 UNIMARC 매뉴얼 등을 바탕으로 서지기술 및 표목 규칙의 구조 재편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록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FRBR에서 이용자 지향형의 저작개념이 정립되고, 이 저작개념을 중심으로 관계성을 도입하여 목록세계의 개념모형으로서 FRBR이 제안되었다 할 수 있다.

목록에 있어 관계성을 도입하면, 무엇보다 저작간의 집합형성이나 전거제어에 유리하며, 지금까지 목록규칙에서 제대로 취급하지 못하였던 네트워크 전자자료나 멀티미디어와 같은 자료를 수용할 수가 있다. 오늘날 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자료의 증가와는 달리 이를 위한 투자 가능 예산 및 인력의 감소 경향으로 최소수준의 목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메타데이터에 비해 목록규칙이나 MARC은 기술을 위한 기술을 하는 경향이 있고 복잡하며, 이용자지향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것이 FRBR이며, 이는 목록레코드의 데이터요소를 이용자 요구와의 관계에 착안하여 재편한 것이다. FRBR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서지레코드로 기록된 데이터와 이용자 요구를 연결시키기 위해 명확히 구조화된 전거를 제공하고 있다.
- 각국에서 작성된 서지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위해 공통의 개념모형을 작성한다.
- 각국에서 작성된 서지레코드의 기본수준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FRBR은 도서관에서 지금까지 작성해 온 서지레코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보원에 대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하나로 통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은 서지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항목을 제시하고, 항목간에 간계를 표시한 서지모델 즉, 서지레코드의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개념모형이다. 또한 이 개념모형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사용되는 모형화의 방법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FRBR에서는 개체-관계(entity-relationship) 모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모형을 사용함으로써 각국 도서관이 국가서지를 작성하여 국가간에 서지레코드를 공유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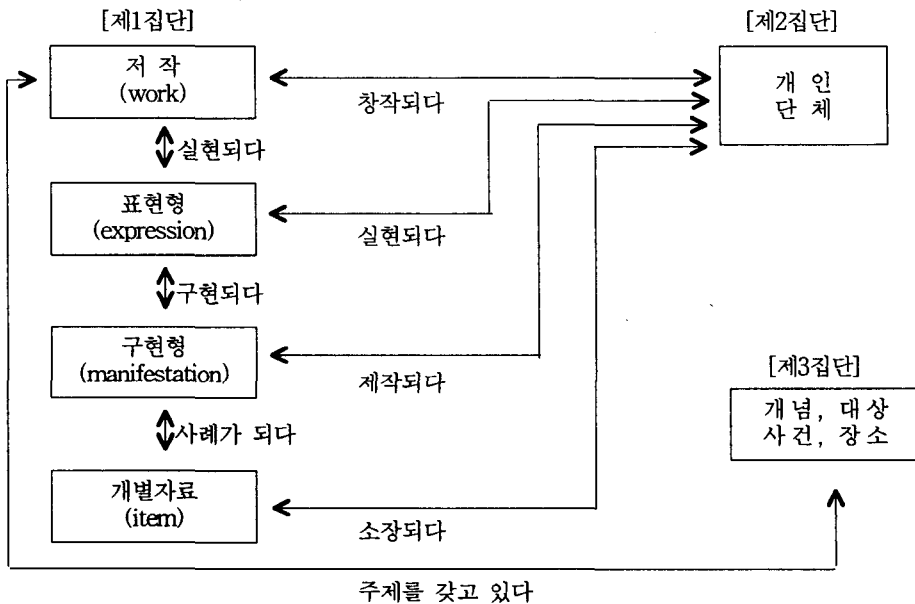
3) Barbara B. Tillet, "Bibliographic Relationships," in *Relationships in the Organization of Knowledge* (edited by Carol A. Bean and Rebecca Green. Dordrecht : Kluwer Academic Pub., 2001), pp.19-35.

4) R. P. Smiraglia and G. H. Leazer, "Derivative Bibliographic Relationships ; The Work Relationship in a Global Bibliographic Databas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50(1999), pp.493-504.

2. FRBR의 저작개념

1) FRBR의 구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작성을 위한 모형화 방법의 하나인 개체-관계 모형은 개체와 관계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되는 대상과 그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 개체는 데이터베이스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역에서 인식되는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며, FRBR에서는 서지적 영역을 대상으로 정보원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검색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10개의 개체로 추출한 후 그것을 3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있다. 이들 3개 집단의 관계를 모형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FRBR 모형의 개요

제1집단은 '서지레코드에 기술되어 있는 지적 예술적 활동의 성과'로서 정보원을 이용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가를 4개의 개체 즉, 저작(work), 표현형(expression), 구현형(manifestation), 개별저작(item)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2집단은 지적 예술적 내용, 물리적 생산, 배포, 생산물의 관리, 보관에 책임을 갖는 것으로서 개인저자, 단체저자, 출판사, 도서관 등을 개인과 단체라는 두 개의 개체로 나타내고 있다. 즉, 개인 또는 단체는 제 1집단의 4개 개체인 저작을 창조하고, 표현형을 실현하고, 구현형을

형을 생산하며, 개별자료를 입수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제 3집단은 지적 예술적 활동의 대상이 되는 주제(테마, 개념, 인물, 사건, 시대, 영역 등)를 개념, 대상, 사건, 장소의 4개 개체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3개 집단의 관계는 제 2집단이 주체가 되어 제 3집단의 대상으로 작용하면, 그 결과 제 1집단의 성과가 생겨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3개 집단가운데 제 1집단이 정보원 자체를 기술하는 핵심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집단에서는 저작아래에 다른 개체가 순서대로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이 4개의 개체도 화살표시로 나타낸 개체간의 관계는 이용자가 정보원을 입수하는 관점을 모형화하고 있는 것이다.

저작은 추상적인 관점으로서 지적 예술적 창작물을 나타내고, 표현형은 저작의 지적 예술적 창작물을 구현(실감, 이해, 현실화)한 것을 나타낸다. 이 저작과 표현형은 이용자가 원하는 지적 예술적 활동성과의 내용에 대해 기술하기 위한 개체로서 기능을 한다. 즉, 어떤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용자가 알도록 하는 관점이다. 구현형은 지적 예술적 내용을 물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을 나타내며, 개별자료는 그 일례를 나타낸다. 구현형과 개별자료는 물리적인 형식을 기술하기 위한 개체로서 기능을 한다. 즉, 어떤 매체로 유통되며, 어디가면 그것을 입수할 수 있는가를 이용자가 알도록 하는 관점이다.

이 중에서도 저작은 이용자가 인식한 개체로서 처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3개의 개체로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저작과 표현형은 한 개의 저작에 복수의 표현형이 관계되어 있으며, 표현형과 구현형간에는 서로 복수의 개체를 관련시킬 수가 있다. 구현형과 개별자료간은 한 개의 구현형에 복수의 개별자료가 관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림 2>는 FRBR에 있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관계를 *The Old Man and the Sea*를 예로 들어 나타낸 것이다. 'Ernest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추상적인 저작 개체아래에 영문 원본, 한글 번역, 일본어 번역, 영문 낭독, 점자와 같은 5개의 표현형이 연결되어 있다. 각 표현형아래에는 단행본, CD, 카세트테이프, 점자도서라는 복수의 구현형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림 2>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 구현형 아래에는 다시 개별자료의 구체적인 소장상황 즉, 소장도서관 및 청구기호와 같은 관리번호가 연결된다. FRBR은 이와 같이 4개의 계층관계와 표현형간, 구현형간, 개별자료간에 형제관계(sibling relationship)를 갖고 있다.

2) FRBR의 저작개념

FRBR의 저작개념은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 1집단의 4개 개체로 집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개별자료를 제외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의 3개 개체를 중심으로 저작개

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저작

저작이라는 개체는 지적 예술적 창작물이며, 추상적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학술적인 연구와 독창적인 문학작품이나 음악작품 등이며, 그것이 언어나 음성으로 표현되기 이전의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술의 예는 <그림 2>와 같다.

<p>저작 A: Ernest Hemingway의 <i>The Old Man and the Sea</i></p> <p>표현형 A-1: 저작의 영문 원본</p> <p> 구현형 A-1-1: <i>The Old Man and the Sea</i> [단행본] (New York : Bantam, 1952)</p> <p> 구현형 A-1-2: <i>The Old Man and the Sea</i> [단행본] (London : Granada, 1976)</p> <p>표현형 A-2: 전진회에 의한 한글 번역</p> <p> 구현형 A-2-1: 노인과 바다 [단행본] / 전진회 옮김(서울 : 한실미디어, 1994)</p> <p>표현형 A-3: 福田恒存에 의한 일본어 번역</p> <p> 구현형A-3-1: 老人と海 [단행본] / 福田恒存 譯 (東京 : 三笠書房, 昭和31)</p> <p>표현형 A-4: Elliot Engel에 의한 영문 낭독</p> <p> 구현형A-4-1: <i>The Old Man and the Sea</i> [카세트테이프] (Cassette Studies, 1980)</p> <p> 구현형A-4-2: <i>The Old Man and the Sea</i> [CD] (Raleigh, NC : Authors Ink, 1984)</p> <p>표현형 A-5: Louis Braille Productions에 의한 點字化</p> <p> 구현형A-5-1: <i>The Old Man and the Sea</i> [점자도서] (Louis Braille Productions, 1985)</p> <p>저작 B: Henry King에 의한 <i>The Old Man and the Sea</i> 영화 각본</p> <p>표현형 B-1: Henry King에 의한 영화 각본</p> <p> 구현형 B-1-1: <i>The Old Man and the Sea</i> [영화] (New York : Warner Bros, 1968)</p> <p> 구현형 B-1-2: <i>The Old Man and the Sea</i> [DVD] (New York : The Teaching, 2002)</p> <p>저작 C: 유호근에 의한 '老人과 바다' 연구</p> <p>표현형 C-1: 유호근에 의한 '老人과 바다' 연구</p> <p> 구현형 C-1-1: Hemingway의 '老人과 바다' 연구 [책자형] / 유호근 (석사학위논문, 2000)</p> <p> 구현형 C-1-2: Hemingway의 '老人과 바다' 연구 [디스켓] / 유호근 (석사학위논문, 2000)</p>

<그림 2> 저작개념의 예: Ernest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the Sea*

저작 A는 Ernest Hemingway의 원작인 *The Old Man and the Sea*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이며, 저작 B는 원작을 기초로 Henry King에 의해 작성된 영화 각본이고, 저작 C는 원작을 바탕으로 유호근의 관점에서 *The Old Man and the Sea*에 대해 연구된 논문이다

저작과 표현형과의 관계는 <그림 2>에서 저작 A와 그 아래에 위치한 표현형 A-1, A-2,

A-3, A-4, A-5와 같다. 저작은 다양한 표현형간이나 표현형내에서 내용의 공동체에만 존재하며, 특정 표현형식이나 매체를 지정하지 않고 작품자체를 원하는 이용자의 검색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즉, 'The Old Man and the Sea의 내용을 알고 싶다'는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서지데이터베이스에는 'Ernest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the Sea'이라는 작품명을 저작이라는 종류의 개체에 기술하여 둔다. 이것을 근거로 The Old Man and the Sea의 원본이나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고 싶은 이용자, 낭독이나 점자화 된 것을 즐기고 싶은 이용자, 그리고 특정 표현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이용자 등 모두에게 대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표현형식을 알고 있는 이용자가 다른 형식의 것을 알 수 있도록 저작이라는 개체아래에 표현형(지적 예술적 창작물의 표현)을 관련지워 놓은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은 동일 작품에서 유래한 다종다양한 표현형식의 차이점을 보고 싶거나, 동일 작품에서 유래한 어떤 하나의 표현형식에서 다른 표현형식을 보고 싶을 경우에 표현형식의 차이점을 구별하고 있는 표현형을 하위 수준으로 하여 작품을 식별한다. 다만 저작은 동일 작품에서 유래한 것이라도 의역, 개작, 아동용으로 각색, 풍자적으로 개작, 초록, 발췌, 요약, 문학작품에서 드라마로 각색한 것 등은 별개의 다른 저작으로 구별하여 기술된다. 음악작품의 경우, 편곡은 구별되지 않지만 변주곡이나 완전한 개작은 다른 저작으로 구별하여 기술된다. 즉, <그림 2>에서와 같이 소설에서 영화 각본으로 각색된 저작 B, 새로운 관점으로 연구되거나 개작된 저작 C는 저작 A와는 별개의 저작으로 간주한다.

(2) 표현형

표현형이라는 개체는 문자, 숫자, 악보기보법, 무용기보법, 음향, 화상, 실물, 동작, 또는 그것을 조합한 형식으로 표현의 차이를 동일 저작아래에서 구별하여 기술하기 위한 기능을 한다. 이 개체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문, 번역문, 영화 시나리오, 라디오방송 시나리오 등과 같은 표현형식을 기술하며, 서체나 지면배치와 같은 물리적 형식은 그 하위의 표현형에서 기술한다.

원작의 형식변경(예: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조)이나, 번역과 같이 다른 언어로 변경된 것은 원작과 동일 저작으로 간주한다. 표현형의 수준에서 식별되는 것은 크게 ① 내용이 변화된 것: 개정, 갱신, 축소, 증보, ② 본문의 열이 변화된 것: 번역, 악곡의 편곡, 문장표현에서 특정 단어·어구·문장이 변화된 것, 음악작품의 표현에서 음부(音符)가 변화된 것, ③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악곡에 성부(parts)나 반주를 추가한 것, 외국영화의 대사를 자국어로 녹음하거나 자막이 첨부된 것 등이다.

예를 들면, 도서의 경우 초판과 개정판, 원전과 번역판 등은 각각 표현형수준에서 구별된다. 표현형은 '초판대신에 제 2판을 보고싶다', '어떤 작품의 한국어판을 원한다'와 같이 이용

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현형을 하위에 둠으로써 저작 자체는 초판과 개정판, 원전과 번역판, 원곡과 편곡을 식별하지 않는다.

(3) 구현형

구현형은 추상적인 것(저작)이 표현형식을 수반하여(표현형) 물리적으로 구체화된 것에 대해 기술하도록 설정된 개체이다. 즉, 구현형은 지적내용(저작)과 그 표현형식(표현형)이 동일한 것이므로 물리적인 대상이 다른 것을 구별한다. 구체적으로는 원고, 도서, 연속간행물, 지도, 포스터, 녹음물, 영화, 비디오, 점자, CD, DVD 등과 같은 물리적인 매체를 수반하고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그 특징을 구별하며, 이용자에게 어떤 매체로 정보원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다.

<그림 2>에서 Elliot Engel에 의해 영문으로 낭독된 *The Old Man and the Sea*(표현형 A-4)는 1980년 Cassette Studies사에 의해 카세트테이프로 제작되며(구현형 A-4-1), 1984년 이것을 저본으로 Authors Ink사에서 CD(구현형 A-4-2)로 제작한다. 이와 같이 구현형은 동일한 작품에서 동일한 표현형식에 맞춘 것을 물리적인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별되고 있다.

지금까지 저작, 표현형, 구현형이라는 3개 개체의 검토를 통해 FRBR의 저작개념을 살펴보았다. 저작은 추상적인 것이며, 표현형과 구현형을 동반하고 있어 미리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저작에는 문학작품이나 음악작품에 해당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느 것도 특정 표현형식이나 물리적 매체가 수반되어 있지는 않다. 그 때문에 저작이 어떤 언어로 처음 표현된 원작이나 원작과 다른 언어로 표현된 번역본, 혹은 다른 매체로 변환된 도서를 모두 동일한 저작으로 간주하고 있는 구조이다. 예를 들면, Ernest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the Sea*가 전진희에 의해 한글로 번역되거나 Elliot Engel에 의해 영문으로 낭독되거나 Louis Braille Productions에 의해 점자로 발행하여 파생된 모든 것은 'Ernest Hemingway의 *The Old Man and the Sea*'라는 추상적인 저작아래에 함께 모을 수가 있다.

III. 국제표준번호의 현황과 특성

1. 국제표준번호들의 현황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전 세계 146개국의 국가표준기구

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비정부기관으로 기술위원회(TC: Technical Committees)에서 각 분야의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도서관분야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ISO/TC46이다. '정보와 도큐멘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ISO/TC46은 전문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으며, 지금까지 국명코드, 탐색용 프로토콜(Z39.50), ISBN이나 ISSN을 비롯한 각종 정보유통관련, 도서관 수행지표, 문서용지 내구성의 요건과 같은 국제규격을 제정하여 왔다. ISO 국제규격은 일반적으로 5년마다 시장성을 보고 다시 정하지만, 시장성이 없는 규격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전의 규격대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ISO/TC46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파악하면서 한편으로 정보나 도큐멘테이션 분야의 전자화에 대응하여 여러 규칙을 개정하여 오고 있다.

ISO/TC46 산하에는 현재 1개의 조정그룹(CG: Coordinating Group)과 3개의 실무그룹(WG: Working Group), 그리고 4개의 하위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ISO/TC46/SC9에서 정보식별을 위한 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국제표준번호나 코드 즉, 정보식별자와 기술방법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⁵⁾ SC9에서는 도서관 연속간행물과 같은 전통적인 종이매체의 정보원뿐만 아니라 전자자료, 음악작품, 언어에 의한 작품, 시청각작품과 같은 물리적 매체를 수반하지 않는 것도 다루고 있다. 최근 SC9의 새로운 명칭이 문헌이란 용어를 삭제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보식별자를 운용하는 기관단체로서 정보기관(도서관, 박물관, 문서관, 미술관, 음악관 등)이나 콘텐츠산업(출판자나 기타 콘텐츠 작성 및 제공기관)외에 저작권 관리기관도 가세하고 있다. SC9는 정보식별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을 정보유통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까지 국제규격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준비중인 번호제도 가운데 특히 정보유통을 위한 것으로는 ISBN, ISSN, ISMN, ISRN, ISRC, ISAN, ISWC, ISTC 등 8개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책자형 매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ISBN과 ISSN이 가장 먼저 규칙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들에 비해 저작권관리가 비교적 복잡하고 전자매체와 관련된 것들이 비교적 최근에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 특히 ISWC와 ISTC는 세계각국의 저작권관리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CISAC(국제저작권협회국제연맹)은 저작권 관리단체들의 요망을 받아들여 1996년 작품 코드에 관한 국제규격안을 제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이 제안은 작품(저작)이 모든 매체로 발표(출판) 혹은 유통되는 경우, 작품의 사용에 관한 저작권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작품의 사용에 관한 기록을 저작자, 저작권관리기관, 출판자 및 음악제작자, 판매업자, 도서관이 상호 교환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작품에 코드를 부여하게 하고 있다. 그 후 코드의 적용영역에 대한 차이에서 작품의 종류(음악작품과 언어에 따른 작품)에 따라 별개의 2개 규격안으로 진전되었다. 이미 국제규격으로 되어있는 ISBN, ISSN, ISMN이라는 국제표준번호

5) ISO, *ISO TC 46/SC 9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http://www.nlc-bnc.ca/iso/tc46sc9/> [cited 2004. 2. 10].

(종이매체를 중심으로 물리적인 존재에 대해 부여)와의 상호 역할분담을 조정하면서, 새로이 작품자체에 번호를 부여하여 식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코드로서 음악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ISWC와 언어에 의한 작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ISTC가 제안된 것이다.

2.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

국제규격으로 제정되어 있거나 준비중인 번호제도가운데 특히 정보유통을 위한 ISBN, ISSN, ISMN, ISRN, ISRC, ISAN, ISWC, ISTC 등 8개를 중심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ISBN⁶⁾은 전 세계적으로 시시각각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양의 도서(books)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도서유통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정한 표준도서번호를 말한다. 처음에는 일반도서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1992년 개정된 제3판부터 기타 단행본 즉, 교육용 영화/비디오/슬라이드, 카세트 테이프,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문헌, 마이크로자료, 점자자료, 지도 등을 포함시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ISBN은 단순히 출판되는 도서의 식별뿐만 아니라, 출판사마다 자신의 출판물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 때문에 ISBN은 표제나 새로운 판마다 다른 번호가 부여될 뿐 아니라, 표제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출판사에서 발행되면 별도의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또한 처음에 책자형으로 출판된 백과사전을 CD-ROM으로도 출판하면, 그 CD-ROM에도 새로운 ISBN이 부여된다. 실제로 ISBN의 부여대상이 되는 것은 ISBN 등록관리기관인 국제 ISBN 기관이 인정한 각국의 ISBN 기관에 등록하고 있는 출판자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ISBN이 부여되면 International ISBN Agency는 소속회원국들의 ISBN 코드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해주기 때문에 국제출판물 발행 및 동향정보 등을 쉽게 입수할 수 있다.

(2) ISSN⁷⁾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연속간행물(serials)의 식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그 간행물에 관한 ISSN과 등록표제 등의 서지정보를 ISSN International Center에 등록한 후, 이들 정보를 국제적으로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ISSN이 부여되면 발행국, 발행자, 언어, 내용에 관계없이 쉽게 자료를 식

6) ISO 210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ng (ISBN)*, Third edition, 1992, <<http://www.nlc-bnc.ca/iso/tc46sc9/wg4.htm>> [cited 2004. 2. 5].

7) ISO 329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ISSN)*, Third edition, 1998, <<http://www.nlc-bnc.ca/iso/tc46sc9/wg5.htm>> [cited 2004. 2. 5].

별할 수가 있으므로 도서관이나 출판사 등과 같은 유통기관에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1972년 ISSN 초판이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 책자형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최근의 네트워크 전자환경을 반영하여 1998년 제 3판에서는 컴퓨터 디스크나 CD-ROM은 물론 온라인 전자저널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마이크로폼에 의한 복제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의 저널이라도 매체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의 ISSN이 부여된다. 예를 들면, 같은 저널의 책자형과 전자버전은 ISSN이 다르며, CD-ROM 버전과 온라인 버전도 번호가 다르다. 다만 전자저널의 파일형식(ASCII, PostScript, 하이퍼텍스트 등)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3) ISMN⁸⁾은 International ISMN Agency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판매나 임대 또는 저작권목적에 위해 책자형의 악보(printed music publications)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다. 이는 음성기록이나 음악비디오기록(ISRC를 적용)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며, 음악에 관한 도서(ISBN을 적용)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악보도 ISBN에서 다루고 있는 단행본과 같은 유형의 출판물이지만 10행의 번호가운데 처음 1행은 'M'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여 ISBN에서 다루고 있는 출판물과 번호를 구별하고 있다. 나머지 다른 번호는 ISBN과 같은 형태로 출판자와 악보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ISMN의 형식은 ISBN에 따르는 것이지만 문헌식별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 항목에서 언급할 ISRC, ISAN, ISWC라는 음악관련 번호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4) ISRN⁹⁾은 기술보고서(technical reports)를 대상으로 하며, 매체는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즉, 비인쇄매체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출판된 것은 물론, 사내의 기술보고서에도 적용할 수 있다. ISRN은 고유한 창작성을 위해 통일된 형식으로 기술되며,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기술보고서의 발행기관과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 기술보고서는 대개 후원한 단체나 개인에게 연구결과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상업적으로 출판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어, 일반 서적상을 통해서 입수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총서의 일부뿐이나 별도의 단행자료 형식으로 책자나 디스켓, CD-ROM 형태 등으로 발행되고 있지만 비매품이 대부분이며, 동일한 내용의 기술보고서인 경우 출판매체에 관계없이 같은 번호가 부여된다. ISRN은 ISRN Registration Authority에서 관리하고 있다.

8) ISO 1095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 (ISMN)*, 1993,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0957e.htm>> [cited 2004. 2. 5].

9) ISO 1044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Technical Report Number (ISRN)*, 1994,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0444e.htm>> [cited 2004. 2. 5].

(5) ISRC¹⁰⁾은 음성기록(audio recordings) 및 음악비디오기록(music video recordings)을 아날로그나 디지털형식에 관계없이 식별하기 위해 부여되며, 기록된 것을 수록하고 있는 용기 즉, 음악레코드나 음악 CD에는 부여되지 않는다. 코드의 구성요소는 기록내용의 최초 판권소유자와 그 소재지, 기록연도, 기록내용 번호순으로 되어있다. 최초의 판권소유자가 식별요소로 되어 있는 것은 음악 CD와 같이 기록내용이 복수의 용기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많고, 용기에 의한 식별보다도 최초의 판권소유자나 최초의 기록연도를 수록하는 편이 식별성이 높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음성(음악)기록내용 즉, 음원(音源)이 하나의 음악 CD에 수록되는 경우, 음원의 단위인 악곡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코드가 부여되며, 같은 음원이 다른 매체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코드가 부여된다. 동일한 악곡이라도 연주되는 시점이나 장소가 다르면 다른 음원이 되므로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여 식별하고 있다. ISRC 제도는 ISO, 국제 ISRC 등록관리기관, 그리고 각국의 국내 ISRC 등록관리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 ISRC 등록관리기관에는 ISO에 의해 IFPI(국제레코드산업연맹)가 지정되어 있다. 그리고 IFPI는 각 지역의 국내 ISRC 등록기관을 지명한다.

(6) ISAN¹¹⁾은 어떤 장치를 통해 음성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의도된 일련의 시청각자료(audiovisual works)를 식별하기 위해 부여된다. 앞서 언급한 ISRC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ISRC는 음악작품이 음원으로 표현된 것을 식별하는 반면, ISAN은 언어에 의한 작품이 시청각자료로 표현된 것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다. ISAN의 구성요소는 시청각자료 제작지역, 연번, 검사숫자이며, ISRC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청각자료가 다른 매체로 다시 이용되더라도 식별번호는 변화하지 않는다. ISAN 제도는 AGICOA(국제시청각자료관리협회), CISAC(국제저작권협회연맹), FIAPF(세계영화제작자연맹)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International ISAN Agency에서 등록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7) ISWC¹²⁾는 음악작품(music works)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이다. 지금까지의 식별대상과 다른 것은 물리적 매체를 수반하지 않는 점과 작곡자 이외에는 내용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음악작품이 음원으로 되기 이전에 코드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등록시에도 작곡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한 표제를 신고할 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코드부여는 음원 그 자체이며, 음악제품화가 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동일한 음악작품이 다른 음악

10) ISO 39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ISRC)*, Second edition, 2001, <<http://www.nlc-bnc.ca/iso/tc46sc9/3901.htm>> [cited 2004. 2. 5].

11) ISO 1570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ISAN)*, 2002,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5706e.htm>> [cited 2004. 2. 5].

12) ISO 1570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 (ISWC)*, 2001,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5707e.htm>> [cited 2004. 2. 5].

으로 제작되더라도 동일한 ISWC가 부여되며, 작곡자의 저작권처리를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ISWC의 국제등록관리기관은 CISAC이 담당하고 있으며, 코드가 부여된 작품에는 메타데이터도 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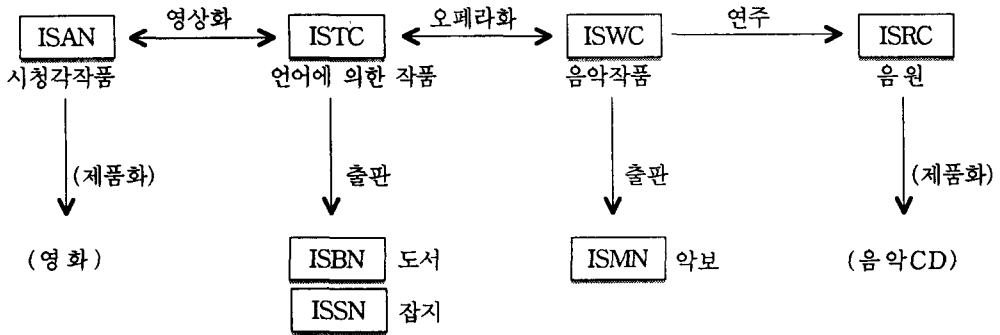
(8) ISTC¹³⁾는 언어에 의한 작품 즉,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작품(textual works)을 식별하기 위한 코드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주로 문학작품)에 대해 저작자가 등록하여 코드를 부여하면, 동일한 작품이 도서로 출판되거나 영화로 제작되거나 동일한 작품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식별할 수가 있다. ISTC의 목적은 언어에 의한 작품의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CISAC을 포함한 컨소시엄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현재 저작권관리단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제공에 참여하고 있는 출판관련기관에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4년 ISO에 등록될 예정이다.

이러한 번호들을 실제로 부여하기 위한 국제표준번호제도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번호제도마다 별도의 관리유지기관에 의해 구축되고 있다. 그런데 번호에 따라 기록된 식별 요소의 대부분은 목록규칙에 있어 서지기술을 위한 요소와 유사한 것이지만, 번호부여의 대상이나 규격의 적용범위, 그리고 규격관련기관에 따라 각 번호제도가 식별하려는 대상에 관한 정보가 매우 다양화되어 있다. 특히 ISRC, ISAN, ISWC, ISTC는 지금까지의 자료를 식별하기 위한 번호제도인 ISBN이나 ISSN, ISMN과는 많이 다르므로 번호제도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자료에서 어떤 형체를 지니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작품이나 예술적인 창작 그 자체에 이르기까지 식별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음악에 대해 종합해 보면 악곡자체에 ISWC가 부여되고, 악곡이 악보에 기록되면 ISMN이 부여되며, 이것이 음악으로 연주되면 ISRC가 부여된다. 또한 어떤 문학작품이 작가에 의해 창작되면 ISTC가 부여되고, 그 내용이 비디오로 제작되면 ISAN이 부여되며, 그 내용이 도서로 출판되면 ISBN이나 ISSN이 부여된다. 이러한 번호들간에 관계를 알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3>¹⁴⁾과 같다.

13) ISO/CD 2104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 (ISTC)*, <<http://www.nlc-bnc.ca/iso/tc46sc9/wg3.htm>> [cited 2004. 2. 5].

14) 菅野育子, “「情報と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に関する標準化活動の現状,” *情報の科學と技術*, Vol.53, No.6(2003), p.292.



<그림 3> 국제표준번호들간의 관련성

IV. FRBR에 의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비교분석

1.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앞서 살펴본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의 특성을 바탕으로 이들이 식별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개념을 FRBR에서 제안하고 있는 제1집단의 저작개념에 의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ISBN은 도서 또는 전자자료나 지도 등과 같은 기타 단행자료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ISBN의 적용규칙을 분석하여 보면, 표제와 내용이 동일한 자료라도 출판 매체를 달리하면 새로운 ISBN이 부여된다. 그리고 개정판은 물론이거니와 내용과 표제가 동일하더라도 출판사를 달리하면 다른 번호가 부여된다. 이와 같이 저작의 내용이나 표현형식보다는 단행본이나 비디오, CD-ROM 등과 같이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

(2) ISSN은 책자형의 연속간행물이외에 전자매체의 연속간행물도 적용대상이며, 그 표제에 대해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ISSN의 적용규칙을 살펴보면 마이크로폼에 의한 복제를 제외하고는 표제와 내용이 동일한 저널이라도 출판 매체를 달리하면 별도의 ISSN이 부여된다.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동일한 저널의 전자저널과 인쇄저널은 ISSN이 다르게 부여된다. 다만 동일한 전자저널간에 PDF나 HTML 등과 같이 파일형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ISSN은

ISBN과 마찬가지로 저작의 내용이나 표현형식보다는 책자형이나 CD-ROM, 온라인 저널 등과 같이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

(3) ISMN은 책자형 악보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책자형 악보의 자료형태는 단행본과 동일하며, 단지 책의 내용이 악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악보가 연주되거나 악보를 바탕으로 음악 CD를 제작한 경우에는 별개의 자료이며, 이 경우에는 ISMN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ISRC와 같은 다른 번호체계가 적용된다. 이와 같이 ISMN도 앞서 언급한 ISBN이나 ISSN과 같이 저작의 내용이나 표현형식보다는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ISRN은 출판매체에 상관없이 기술보고서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ISRN의 적용규칙을 살펴보면 동일한 내용의 기술보고서가 책자형과 디스켓과 같은 전자자료로 동시에 발행될지라도 매체에 관계없이 동일한 번호가 부여된다. 따라서 ISRN은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보다는 기술보고서의 내용에 의한 표현형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ISRC는 음원 즉, 음성기록 및 음악비디오기록의 내용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록된 것을 수록하고 있는 음악레코드나 음악 CD에는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ISRC는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보다는 기록내용에 의한 표현형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ISAN은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자료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ISRC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청각자료가 다른 매체로 다시 이용되더라도 식별번호는 변화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ISAN도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보다는 기록내용에 의한 표현형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시청각자료의 저작권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7) ISWC는 음악작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국제표준번호들과 적용대상이 다른 것은 물리적 매체를 수반하지 않는 점과 작곡자이외에는 내용 그 자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ISWC의 적용규칙을 살펴보면, 동일한 음악작품이 다른 음악으로 제작되더라도 동일한 ISWC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ISWC는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이나 음원으로 표현된 표현형이전의 작품(저작)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ISTC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ISTC의 적용규칙을 살펴보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동일한 작품이 도서로 출판되거나 영화로 제작되거나

동일한 ISTC가 부여된다. 이 때문에 ISTC는 앞서 언급한 ISWC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매체에 의한 구현형이나 언어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표현형이전의 작품(저작)이 식별의 관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도서, 잡지, 악보 등과 같이 물리적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ISBN, ISSN, ISMN은 구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음성기록 및 음악비디오기록, 동영상과 같은 시청각자료, 기술보고서 등과 같이 물리적 매체 대신에 기록(표현)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IARN, ISRC, ISAN은 표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언어에 의한 작품이나 음악 작품과 같이 어떤 형식이나 수단으로 표현하기 이전의 작품(저작)을 전제로 하고 있는 ISWC와 ISTC는 그 표제를 대상으로 저작을 식별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FRBR의 포괄적인 '저작' 개념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것은 ISWC와 ISTC라고 할 수 있다.

2.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 특성

FRBR에서 제시하고 하고 있는 제 1집단의 저작, 표현형, 구현형이라는 계층을 사용하여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을 같은 계층의 저작개념으로 대응하여 비교하더라도 이들간에 구체적인 저작개념의 규정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국제표준번호들 가운데 FRBR의 저작개념에 가장 근접시켜 비교할 수 있는 ISWC와 ISTC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과 특성을 분석하기로 한다.¹⁵⁾

(1) FEBR의 저작과 ISWC 및 ISTC의 저작은 모두 추상적인 무형의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FRBR의 저작은 표현형이나 구현형을 수반하며, 가장 먼저 인식되는 것이다. 또 ISWC와 ISTC의 저작도 무형의 창작물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제로 표현된 것은 없다. 따라서 이들의 저작개념은 추상적이고 무형이라는데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ISWC와 ISTC의 저작개념에는 창작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FRBR의 저작개념은 광범위하고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2) FRBR에서 4개 계층가운데 상층부의 '저작' 개념은 원작간의 관계를 '달리 의존하지 않고 지적 예술적 성과'가 있는 것을 바탕으로 식별하며, 동시에 '지적 예술적 성과에 현저한 변화'가 인정되는 개작도 원작과 구별하고 있다.¹⁶⁾ 즉, 개작 이외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는 원

15) 菅野育子, "IFLA/FRBRとISWC, ISTCのWork概念の比較,"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44(2000), pp.36-37.

16)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op. cit.* pp.16-18.

작의 파생물로 취급하여 별도로 구별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이에 비해 ISWC와 ISTC의 저작개념은 FRBR의 '저작' 수준에 대응하고 있으며, ISWC와 ISTC의 저작은 동일작품으로 간주하는 범위를 좁게 설정하여 식별의 정도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다. 즉, 개작은 물론이거니와 저작내용의 사소한 변경에 대해서도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하여 표준번호를 각각 부여하고 있다.

(3) ISWC와 ISTC가 창작성에 의해 작품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비해, FRBR은 정보원에 대한 이용자의 관점에 의해 작품을 구별하고 있다. 즉, 개작이외의 변화에 대해 모두 원작과 동일 저작으로 모으는 것은 이용자가 변화된 작품의 탐색에 있어 원저의 저자명과 표제를 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 고려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어떤 작품을 읽고 싶은(듣고 싶거나 보고 싶은) 경우, 원하는 정보원에 대해 그 언어나 판, 출판자, 출판연도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양한 표현형식이나 물리적 매체를 수반하고 있는 정보원에서 필요한 것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저작수준이 아닌 표현형수준에서 원작과 파생물을 구별하여줄 필요가 있다. 음악작품의 경우 ISWC에서 구별된 편곡이 FRBR의 저작수준에서는 구별되지 않으며, 원곡과의 구별은 표현형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에 의한 작품의 경우에도 FRBR은 구판에서 신판으로 바꾸거나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화, 어떤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 등을 원작과 동일 저작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초판의 도서와 그 후의 개정판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교과서나 연감, 편람 등과 같이 표제는 변화하지 않지만 집필자가 변할 때마다 다시 출판되는 것이다. 정보원의 이용자는 초판이나 개정판에서 뭔가를 알고 나서 다른 판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며, FRBR에서는 원작이나 변화된 것을 저작수준에서 식별하지 않고 표현형 수준에서 처음으로 구별하고 있다. 즉, 번역판과 원전은 별개의 저작이라는 논의가 있지만 번역본은 '원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용자에게 대응품'이라는 논의에서 오늘날의 목록규칙에서도 원전과 번역본은 동일한 기본표목으로 기술되며, 여기에 대해 FRBR도 저작수준이 아니라 표현형수준에서 처음으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4) 서지기술분야에서 제안된 FRBR과 저작권관리분야에서 제안된 ISWC와 ISTC의 저작개념을 비교하여 보면 각자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보원 식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FRBR의 저작개념이 의미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해, ISWC와 ISTC의 저작개념은 저작권관리분야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창작성의 관점에서 FRBR의 표현형에 해당하는 표현내용에 대해서도 작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은 기본적으로 작품의 창작성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여기에 근거하여 차후에 저작권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저작권관리

에 있어 창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식별단위라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특히 전자환경의 저작권관리 코드로서 제안된 ISWC와 ISTC는 식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준을 저작이라 언급 하면서 코드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FRBR의 제정배경과 저작개념을 분석하고, 정보유통을 위한 국제표준번호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FRBR과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을 비교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FRBR은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요소를 개체-관계 모형을 사용하여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이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의 4개 개체로 구조화한 저작개념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와같은 FRBR의 저작개념을 토대로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ISBN, ISSN, ISMN은 물리적 존재가 전제되어 있는 구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IARN, ISRC, ISAN은 물리적 매체 대신에 기록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표현형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그리고 ISWC와 ISTC는 어떤 형식이나 수단으로 표현하기 이전의 작품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저작을 대상으로 식별하고 있다.

둘째, FRBR의 포괄적인 ‘저작’ 개념에 가장 부합하고 있는 것은 ISWC와 ISTC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의 구체적인 저작개념에 있어서는 국제표준번호들의 저작개념이 기본적으로 작품의 창작성을 식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FRBR은 의미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미묘한 차이점이 있다.

한편 FRBR은 목록분야에서 도서라는 정보매체를 대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저작개념을 어떤 대상의 실체로 인식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이 때문에 FRBR의 저작개념은 서지기술을 한 묶음으로 통합하는 기능이 높이 평가되고 목록분야 이외에서도 응용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용성이 크게 기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노선희. 서지데이터 요소로서의 '저작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성숙. "IFLA의 서지레코드 기능요건(FRBR) 모형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pp.319-342.
- 菅野育子. "IFLA/FRBRとISWC, ISTCのWork概念の比較"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No.44(2000), pp.27-41.
- 菅野育子. "國際標準番号制度; ISSN, ISBN, ISMN, ISRC, ISAN, ISWC (1)-(2)."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No.232(1998), pp.7-8; No.233(1999), pp.3-4.
- 菅野育子. 國際標準番号システムにおける識別要素の検討,
<www.soc.nii.ac.jp/mnslis/am2000/sugano1.pdf> [cited 2004. 2. 10].
- 菅野育子. "「情報とドキュメンテーション」に関する標準化活動の現状" *情報の科學と技術*, Vol.53, No.6(2003), pp.289-293.
- Cornish, Graham. *IMPRIMATUR - Consensus Building in the Electronic Environment*.
<<http://www.eblida.org/eblida/meetings/events/copenhagen/comish.htm>> [cited 2004. 2. 10].
- Giuseppe, Vitiello. "Identifiers and Identification Systems." *D-Lib Magazine*, Vol.10, No.1(Jan. 2004), <<http://www.dlib.org/dlib/january04/vitello/01vitiello.html>> [cited 2004.2. 10].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서지레코드의 기능상의 요건. 김태수 역.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3.
<http://www.nl.go.kr/FRBR/seji_report.html> [인용 2004. 2. 5].
- IFLA Study Group on the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Functional Requirements for Bibliographic Records ; Final Report*. München : Saur, 1998.
- Library of Congress. National Serials Data Program. *ISSN for Electronic Serials*.
<<http://lcweb.loc.gov/issn/e-series.html>> [cited 2004. 2.10].
- ISO 2108.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ing (ISBN), Third edition*, 1992. <<http://www.nlc-bnc.ca/iso/tc46sc9/wg4.htm>> [cited 2004. 2. 5].
- ISO 329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ISSN), Third edition*, 1998.<<http://www.nlc-bnc.ca/iso/tc46sc9/wg5.htm>> [cited 2004. 2. 5].
- ISO 1570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al Work Code(ISWC)*, 2001.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5707e.htm>> [cited

2004. 2. 5].
- ISO 15706.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ISAN)*, 2002.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5706e.htm>> [cited 2004. 2. 5].
- ISO 3901.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ISRC), Second edition*, 2001. <<http://www.nlc-bnc.ca/iso/tc46sc9/3901.htm>> [cited 2004. 2. 5].
- ISO 10444.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Technical Report Number (ISRN)*, 1994.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0444e.htm>> [cited 2004. 2. 5].
- ISO 1095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Number(ISMN)*, 1993. <<http://www.nlc-bnc.ca/iso/tc46sc9/standard/10957e.htm>> [cited 2004. 2. 5].
- ISO/CD 21047.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nternational Standard Text Code(ISTC)*. <<http://www.nlc-bnc.ca/iso/tc46sc9/wg3.htm>> [cited 2004. 2. 5].
- ISO. *ISO TC 46/SC 9 :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 Identification and Description*. <<http://www.nlc-bnc.ca/iso/tc46sc9/>> [cited 2004. 2. 10].
- Tillett, Barbara B. "The FRBR Model." *Workshop on Authority Control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s (March 14-18, 2002, Karuizawa, Tokyo, Kyoto)*. <<http://www.nii.ac.jp/publications/CJK-WS3/mokuji.html>> [cited 2004. 2. 10].
- Turner, Michael. *Identification Codes - Who Needs Them*. <<http://www.iael.org/newsletter/D3Turner.html>> [cited 2004. 2. 7].